

SERMON 15 NOVEMBER 2015

<시편 16, 마가복음 13:1-8>

제가 학교 마지막 이년이 남았을 때 저는 한해 동안 기숙사생이 되었습니다. 그 것은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낮에 학생이었던 학교에 남아있었고, 이제 12 명의 기숙사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우를 잘 받았고 그래서 저는 기숙사생활에 대해서 불평 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나는 향수병이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우리 고학년들은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토요일 저녁 식사로 통조림 스파게티나 토스트 위에 얹힌 구운 콩 을 번갈아 가며 먹었고 제 눈에는 토스트 위에 얹힌 구운 콩이 아주 조금 더 맛있게 보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식사 후 우리는 TV 에 방송되는 영화를 보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영화는 종종 스릴러였습니다. 저는 항상 스릴러를 싫어 했었고 다른 친구들은 즐기는 듯이 보이는 히치콕의 영화를 저는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까지도 무서운 영화를 즐기지 않으며 어떻게 사람들이 무서운 영화로부터 기쁨을 얻는지 이해 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스릴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TV 뉴스를 통해서 거의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밤에 TV 를 켜고는 극적으로 난폭한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읽은 복음서를 생각 해 볼 때, 극적인 위협상황의 예언들 또는 상황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저는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마가가 기록한 것에 대한 상식적인 반응은 우리 주위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종말과 다가오는 대재앙을 나타내는 모든 끔찍한 사건들을 즉시 알아차리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거의 대비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가 우리를 공포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포스러운 마음상태가 되었을 때 지금 여기에서 삶의 아주 편향된 관점이 발달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우리는 그 본문 내용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과 예수님께서 그의 친구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을 놓칠 수 있는 위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갈릴리로부터 온 평범한 일꾼들 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자주 종교적인 축제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예루살렘에 한번도 가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어쨌든, 처음 우리가 들었던 것은 거대한 돌들과 함께한 성전의 훌륭함에 그들이 얼마나 경이로워 했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성전 파괴에 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것은 너무 놀라워서 믿기가 어려웠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마가는 이복음서를 그 사건이 일어난 후인 AD 70 년경에 적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결코 다시 지어 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바리새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그들의 중심을 잃고 작은 기독교 공동체도 전 지역으로 또한 흩어져 있었으며 오해와 박해를 받습니다.

오늘 봉독한 신약 성경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감람 산으로 이동하십니다.

감람 산은 몇 세기 동안 계속 유대인의 매장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감람 산에서 그들은 계곡을 넘어보면서 그들 앞에 있는 대규모 성전 건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무너뜨려 지리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우리모두도 어떤 놀라운 예언을 들을 때 그러하듯이 그들도 언제 일어 나는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성경 뒤에 나오는 다른 곳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하심으로 예수님은 대답을 거절하십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를 향한 배신, 그의 고통과 죽음으로 인도할 사건들이 아주 가까워 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라고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친한 친구들에게 미혹되지 말 것을 주의 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까지도 이런 일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이기 때문입니다.

극적인 자연재해 같이 말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인 재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물론 삶이 그렇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위협을 느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뒤돌아보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에 관하여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 주신 것을 계속 기억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파멸과 재난의 심각한 시나리오를 보는 듯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메세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진들, 폭발된 도시들, 그리고 절박한 피난민들 사진을 볼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사람들이 끊임없는 가뭄으로 그들의 농사에 실패 하여 굶주리고 있고 또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수 없고 기초적인 생활수준들이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을 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 할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가 떠난 후 제자들이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상담하고 있으며 그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성전 건물들과 그의 예언들에서 보여진 것 같이 사물들은 항상 보여진 대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1 세기 작가였던 파이드로스 는 "첫인상들은 많은 것을 속입니다: 마음 깊은 구석에 숨어있는 기술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이 더 불확실해 지면 우리는 안정적이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였던 것이 영속적이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신뢰 하나요? 우리가 어릴 때 있었던 것들이 많은 부분에서 얼마나 다른 것들로 변화되었는지 놀라움을 가지고 돌아보고 알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시대를 통치하는지,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결정하고 정보를 얻고, 움직이고 시기조차 구별하는 지.

우리가 어떻게 즐기는 지는 제외하구요.

공포영화는 컴퓨터와 디지털 기술로 훨씬 더 무서워 졌습니다, 3D 기술은 빼놓구요.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에 앉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숙고하는 것을 듣는다면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도록 상기시키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서는 건물과 구조들과 사회가 무너질 때도 우리에게 단순히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고 무엇이 우리마음에 근본적으로 중요한가요. 우리는 아마 "나와 함께하소서" "제가 보는 모든 것을 변화 시키고 감소시켜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으신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라고 찬양을 했어야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고 세상을 변화 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에 참여 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이것이 마가의 복음과 인간 삶의 개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입니다. 예수님의 그의 친구들을 향한 메시지는 그들이 집중력을 잃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세상의 압박에 취약함을 느끼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집중을 잃기가 너무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는 정말 몇 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이 가진 "시대의 사이(in between time)" 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사이(in between time)"란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과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할 시간 사이를 말합니다.

우리는 아마 예수님이 오래 지속된 노동의 고통을 이야기 하셨던 출산의 고통을 생각 할 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기억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시간과 장소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그리고 이세상의 생명으로 모든 곳에 거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저는 이런 개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때때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들어 왔던 다른 것들에 대해서 별로 말이 되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었던 즉 우리 인생의 산의 정상 또는 바다 깊은 곳의 화려함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찾아왔던 그리스도의 임재는 사실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가는 신앙의 발자국입니다.

그것은 반문화이고 그 것이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경각심과 낙담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숨어버릴 수 있고 또 다른 거짓현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그룹들, 분파들이 스스로 잘 되는 것을 중단하고 그들 자신의 파괴의 원인이 되는지 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피해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가두기 위해 담을 쌓지 말 것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친구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생명은 우리가 볼 눈과 들을 귀와 이해할 마음을 가지고 우리주변의 것들과 관계를 하도록 요청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위에 우뚝 서야만 합니다.

우리는 거의 교회력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왕 "Christ the King"을 축하할 다음주일에 절정에 도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에게 오는 절정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에 어떻게 노출되는 지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로서 이것들을 보도록 쉽게 유혹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의 어느 것도 하나님이 파괴의 대리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의 친구들이 두려움으로 꿈작 못하게 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우리주변의 세상을 위한 끝없는 하나님의 행동의 부분이 되어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미래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과 두려움 그리고 보는 것들에 대한 우울함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키워야 하고 우리의 비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12 세기에 살았던 빙겐의 힐더가드는 “당신 안에 있는 것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 주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적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우리주변에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요?

우리는 매주일 주기도문을 선포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음주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더 알아볼 것입니다.

힐더가드는 만약 우리가 우리 안의 것들을 이해한다면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존재의 중심이 되는 것을 양육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양육될 필요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아마 그 깊은 곳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내고 거기서 무엇이 진실이고 지혜이고 선한 것이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살이와 고난으로부터 쓰기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 중심에 있고, 하나님 왕국은 다시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모든 것 위에 서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두려움과 죽음을 극복할 사랑의 힘 안에 있습니다.